



설원의 사격

23일 강원도 용평 고령지능연구소내 바이애슬론경기장에서 열린 88회 동계체전 바이애슬론 대학·일반부 경기에서 선수들이 주행 후 사격을 하고 있다. 전남대표로는 동신대팀이 출전했다.

/용평=남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 문영화 金 '4연패 위업'

여대 싱글D조 프리스케이팅...광주 11위·전남 7위 지키기 힘찬 레이스

동계체전 사흘째

폐막 하루를 앞둔 '설원 대축제' 제88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광주와 전남은 각각 지난해 순위인 11위와 7위를 지키기 위한 힘든 레이스를 펼쳤다.

광주는 23일 문영화(성신여대1)가 태릉

국제스케이팅장에서 열린 빙상 여대 싱글D조 프리스케이팅에서 1.50을 획득, 첫 금메달을 따내며 대회 4연패의 위업을 세웠다. 이외에 여중부 싱글D조 프리스케이팅에서 이소민(살레시오중 1)이 7위를 기록하며 점수를 보냈다. 광주스키협회는 스키 크로스컨트리에서 메달권에는 들지 못했지만 남자 일반부 프리30km와 복합, 여자일반부 프리

10km에서 소중한 득점을 따냈다.

전남은 금메달이 유력했던 엄유래(동신대 4년)가 빙상피겨 여대부 싱글D조에서 동향 라이벌 광주의 문영화(성신여대)에게 패해 대회 3연패에 실패하며 은메달에 머물렀다. 또 전남에 유일한 금메달을 안긴 김지민(화순초 6년)은 스키 크로스컨트리 여초 복합에서 23분14초 2로 은메달을 추가했다. 김현

민(화순초 6년)도 스키 크로스컨트리 남초 프리4km와 복합에서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을 추가해 전남의 순위지키기에 힘을 더했다.

한편 이번대회는 오는 24일 오후 4시30분 고양 어울림누리얼음마루에서 폐막식을 갖고 4일간의 열전을 마감한다.

/용평=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알파인, 내년엔 꼭 메달 목에 걸겠다"

살레시오초 허연·허유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꼭 입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평에서 열리고 있는 제88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스키 알파인 남초와 여초에 출전한 허연(살레시오초 4), 허유(여·살레시오초 3년)남매는 비록 메달과는 거리가 먼 저조한 기록으로 결승점을 통과했으나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다.

그동안 취미로 스키를 타오던 이들 남매는 지난해 동계체전 스키 알파인 남초와 여초에 출전, 완주하며 올 해 메달기대를 부풀렸다. 하지만 전문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하계에는 인라인롤러스케이팅을 하며 지구력훈련을 하는 것이 고작이고, 겨울시즌이 되어야 무주 등에서 주말훈련을 통해 기량을 연마할 수 있어 입상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상위권을 휩쓸고 있는 강원도는 초등부 선수들이



광주살레시오초 허유(왼쪽), 허연선수

많은데다 훈련기간이 길어 그들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럼에도 허연,허유 남매는 광주시 초 등부의 유일한 스키 알파인 선수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허연은 "내년에는 육상에서 롤러스케이팅 훈련을 통해 기량을 연마할 수 있어 입상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상위권을 휩쓸고 있는 강원도는 초등부 선수들이

/용평=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박지성 3호 골 쏜다

오늘 밤 풀럼전...이동국은 맨유 2군전 데뷔

'신형 엔진' 박지성(26·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이 주말 풀럼전을 앞두고 시즌 3호 골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맨유는 24일(한국시간) 오후 9시45분 풀럼을 상대로 2006-2007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28차전 원정경기를 치른다.

박지성에겐 풀럼과 맞대결은 기분 좋은 추억이다. 박지성은 지난 2005년 10월 1일 풀럼과 원정경기에서 프리미어리그 첫 골격포인트(2도움)를 기록하고 페널티킥까지 유도하는 맹활약으로 팀의 3-2 승리를 이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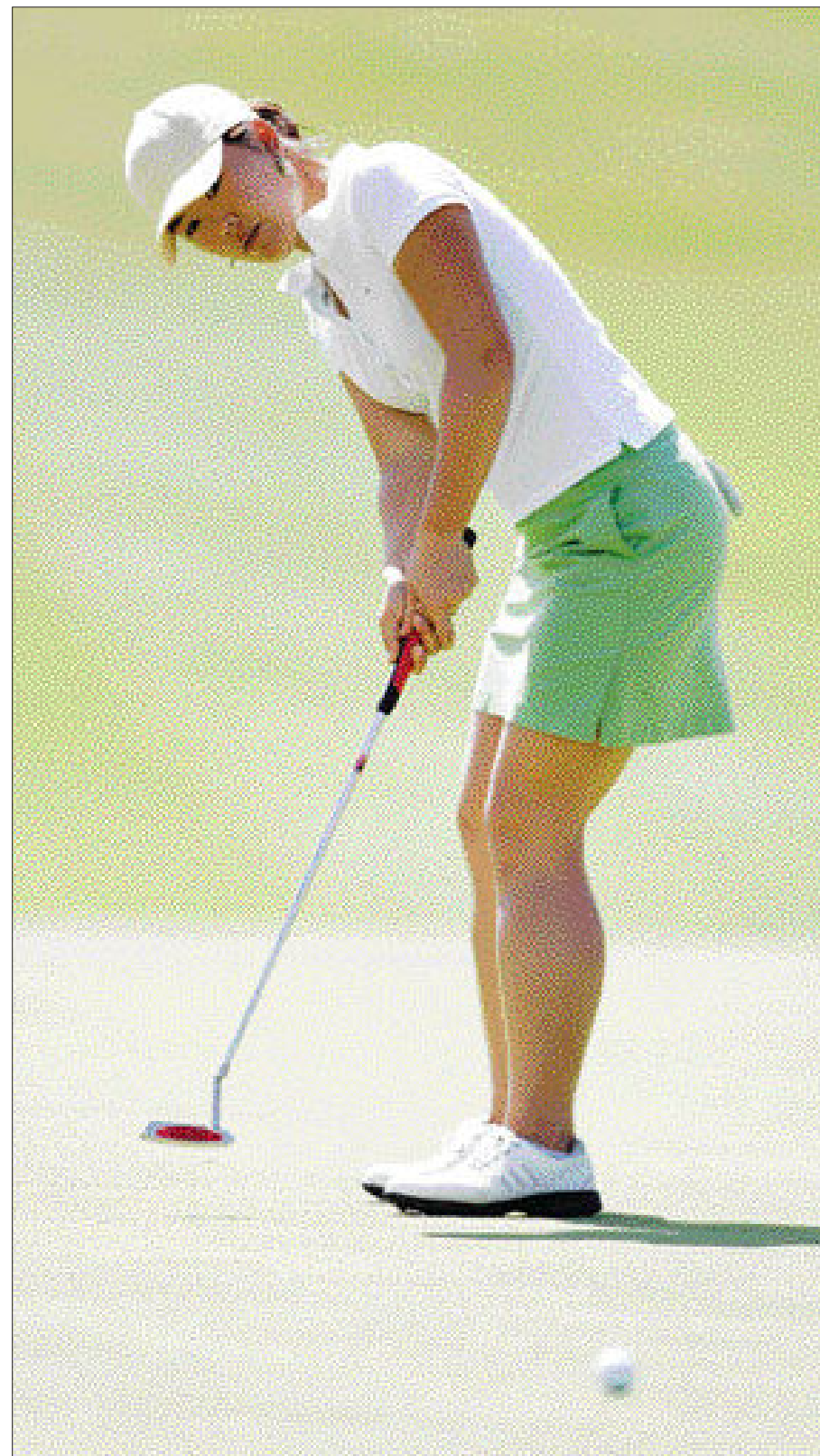
특히 지난 21일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에 라이언 깁스가 풀타임 출전했고, 크리스티나우 호날두의 부상 소식이 들리면서 박지성의 선발 출전 가능성이 높아졌다.

토트넘의 왼쪽 수비수 자리를 꾸준히 지키고 있는 이영표(30)는 26일 오전 0시 불턴과 홈 경기를 앞두고 있다.

한편 23일 새벽 2군 경기를 통해 잉글랜드 무대 '깜짝' 데뷔전을 치른 이동국(28·미들즈브러)은 25일 오전 0시에 치러질 레딩과 홈 경기를 앞두고 있어 설기현(29)과 맞대결 성사 가능성에 눈길이 간다.

맨유 2군 경기에 선발출전해 45분을 소화하면서 날카로운 발리슛을 날리는 등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준 이동국은 레딩전 출격을 위한 마지막 테스트를 마친 상태여서 프리미어리그 데뷔전을 치를 가능성이 높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23일 미국 하와이 코올리나골프장에서 열린 LPGA 투어 필즈오픈 1라운드 11번홀 그린에서 재미교포 신인인 앤젤라 박이 퍼팅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우즈 16강 진출...최경주는 탈락

WGC 악센추어매치플레이

월드골프챔피언십(WGC) 악센추어매치플레이 챔피언십이 '강호들의 무덤'임이 입증됐다.

23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투산 갤러리골프장 남코스(파72·7천351야드)에서 열린 대회 이틀째 32강전에서 세계랭킹 2위 짐 퓨릭(미국)과 3위 필 미켈슨(미국), 6위 레티프 구센(남아공), 7위 비제이 싱(피지), 9위 루크 도널드(잉글랜드), 10위 파드리고

해링턴(아일랜드) 등 상위 랭커들이 줄줄이 탈락했다. 그러나 타이거 우즈(미국)는 16강에 올라 대회 세번째 우승과 미국프로골프(PGA) 투어대회 8연승을 향해 질주했다.

최경주(37·나이키골프)는 '사막 코스 전문가'인 세계랭킹 8위 헨리 스텐슨(스웨덴)에게 2홀차로 졌다.

최경주는 보기없이 버디만 5개를 잡아내는 눈부신 플레이를 펼치지만 7개의 버디를 쓸어담은 스텐슨을 당해내지 못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박주영 미드필더 출격

베어벡 올림픽호 예멘戰 대비 25일 소집

중동의 '다크호스' 예멘과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아시아 2차 예선 1차전(28일 오후 8시·수원월드컵경기장)을 앞둔 베어벡 올림픽호가 25일 파주NFC에서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한다.

일찌감치 엔트리 23명을 발표한 핏 베어벡 감독은 사흘간 짧은 탐금질을 통해 올림픽 본선진출의 1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나서게 된다.

이번 소집훈련에서는 최근 소속팀 전지훈련에서 골 감각을 살리고 있는 박주영(서울)을 베어벡 감독이 어떻게 사용할 지에 관심이 쏠린다.

베어벡 감독은 이번 훈련에서도 4-4-2 전

술을 기본으로 키가 큰 서동현(수원·188cm)과 양동현(울산·186cm)을 최전방에 세우고 박주영과 발이 빠른 이승현(부산)을 양 측면에 세우는 전술을 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드필더진은 백지훈(수원), 오장은(울산), 김승용(광주) 등 이미 경험된 자원 외에 이번 올림픽대표팀의 막내 기성용(서울)과 이요한(제주) 등이 주전경쟁에 나설 태세다.

수비라인에서는 청소년대표팀 시절부터 호흡을 맞췄던 김진규(전남), 안태은(서울), 박희철(포항)이 견제할 가운데 김창수(대전), 김태운(성남)이 코칭스태프의 선택을 기다린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앤젤라 박 깜짝 선두...한국 7명 '톱10'

LPGA 투어 필즈오픈 1R

시즌 개막전 SBS오픈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코리언 군단'이 두번째 대회에서는 첫날부터 상위권을 휩쓸며 위력 시위를 보였다.

23일(한국시간) 미국 하와이주 오하우의 코올리나골프장(파72·6천519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필즈오픈 1라운드에서 브라질 출신 재미교포 신인인 앤젤라 박(19)이 공동 선두에 오르는 등 한국 선수 7명이 10위 이내에 포진했다. 앤젤라 박은 이날 퍼터를 23차례 밖에 사용하지 않는 뛰어난 그린 플레이를 앞세워 7개의 버디를 잡아내며 6 언더파(6타)를 때렸다.

박세리는 강한 바람 속에서 13차례 버디 찬스를 만들어내는 정교한 아이언샷을 뽑아내며 5언더파 67타를 쳐 공동선두에 1타 뒤

진 3위에 올랐다.

장정(27·기업은행)과 이지영(22·하이마트), 배경은(22·CJ) 등 3명은 3언더파 69타로 공동6위에 올라 우승 경쟁에 뛰어들어 채비를 갖췄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최천규 SBS 전국검도왕

최천규(조선대 4)가 2007 SBS 전국검도왕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최천규는 23일 경남 양산시 양산체육관에서 열린 남자대학부 결승에서 계명대 최성민에게 머리치기와 손목치기로 득점하며 2-0으로 승리,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박상수(광주북구청)는 남자일반부 결승에서 청주시청 김용철에게 아쉽게 판정패해 은메달에 머물렀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